

**도메인 분쟁시 상표출원자에게 유리**

도메인을 제대로 지키려면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메인 분쟁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추세로 변모함에 따라, 도메인 전문 스쿼터 스쿼터 (도메인 매점매석 행위자)가 상표권을 등록해 두고 기존 도메인에 대한 분쟁 소송을 내는 사건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는 기존의 도메인 스쿼팅 관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상표권 등록시기 보다 먼저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수 인터넷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자칫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엠펜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식발전소의 경우, 오래 전부터 empas.com이란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문 상표권 등록만 했을 뿐 한글도메인 상표권은 확보하지 않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엠펜스란 상표는 의류관련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동일상표 사업자나 상표권을 취득한 도메인 전문스쿼터가 악의를 가지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곤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다.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적, 물리적 손해 뿐 아니라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다수 인터넷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 엠펜스를 비롯 오르지오, 판지일보, 아이비즈넷, 맥스무비 등은 특허청 상표검색에서 해당상표에 대한 등록자가 없는 것으로 검색됐다.

도메인 호스팅 기관인 후이즈는 "상표의 경우엔 분쟁가능성이 적더라도 회사의 주요한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메인과 함께 국문, 영문 상표권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며 "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메인등록과 상표권 등록이 통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daily 2003/05/29]

**日 대기업과 특허소송서 승리  
자동 藥 포장업체 '제이브이메디'**

한 중소기업이 국내 대형 로펌을 낀 일본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까지가는 치열한 법정싸움끝에 승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국제 특허분쟁은 자동약 포장기업체인 제이브이메디(대표 김준호)와 이분야 세계 최대기업인 일본 유야마사간에 약국 자동화장비의 일종인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ATDPS)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 시스템은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오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약을 조제하고 복용법까지 표면에 프린터해 주는 기술로 세계에서 4개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다.

기계 1대당 가격도 1억원을 호가할 정도의 고부가제품이다.

특허소송은 제이브이메디가 지난 99년 이 제품을 국산화, 연간 2백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의 90%를 석권한 후 일본업체의 아성이었던 미국시장까지 잠식하면서 발생했다.

유야마사가 제이브이메디의 당시 주력제품이었던 반통형 디자인이 자신들의 원통형 제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이브이메디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특허법원은 제이브이메디에게 두차례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야마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승소사실을 알려 제이브이메디가 더 이상 수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국내 대학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수십건의 기계 사용금지 가져분소송도 제기했다.

제이브이메디로선 미국과 체결한 1천만달러짜리 계약이 무산되는 등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칫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제이브이메디는 유명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전력 대응에 나서 최근 판결을 뒤집었다.

김 사장은 "유야마측에 피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주문이 꾸준히 늘어 내년에는 4백억원대의 매출 달성 가능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3/05/28]

## 사스 바이러스 예방-치료 기술 국내 첫 개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부작용 없이 예방.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에 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다.

생명공학 전문 벤처기업인 (주)바이오리더스(대표 성문희)와 (주)엠디랩(대표 김철중)은 사스 바이러스 항원(抗原)을 식용 유산균 표면에 나타나도록 해 이 유산균을복용함으로써 체내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抗體)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술 개발에 사용된 사스 바이러스 항원은 바이러스 표면을 덮고 있는 표면항원(spike protein)으로,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하면 세포에 침입하는 침범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체로는 사스의 유독성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사스 바이러스가 아닌 식용 유산균 표면에서 이 항원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내에 부작용없이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바이오리더스의 이종수 박사는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PED(돼지유행성설사병).TGE(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을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유산균에 접목, 돼지와 쥐에 투여한 결과 PED와 TGE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기술은 혈액내 면역기능인 체액성 면역(IgG)과 코와 장 등의 점막내 면역기능인 점막면역(IgA)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산균을 치료.예방의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장기 투여가능하다는 특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성문희 (주)바이오리더스 대표는 "임상실험 등을 거쳐 늦어도 3년이면 이 기술을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사스 예방.치료제에 대한 세계적인 시급성을 감안하면 우수한 제약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훨씬 빨리 상용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바이오리더스 등은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이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주)바이오리더스와 (주)엠디랩은 둘 다 생명공학 분야 학내 벤처기업으로, 각각 국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소속이다.

(연합뉴스) (6. 8)

## 암세포 유전자 활용 인공동맥 제작 성공

사람의 근육세포에 특수 유전자를 넣어 인공동맥을 만들어내는 길이 열렸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최근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 로라 니컬슨 박사가 시험관에서 인간동맥을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니컬슨 박사는 이 연구를 과학학술지인 '유럽분자생물학' 최신호에 발표했다.

니컬슨 박사는 사람의 평활근 세포에 암세포의 유전자 'hTERT'를 넣어 동맥의 외피를 배양한 뒤 여기에 동맥 내피를 덧붙여 인간 동맥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유전자 'hTERT'는 암세포가 무한히 증식하도록 하는 유전자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동맥을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동맥의 외피를 형성하는 평활근 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데 실패했다.

니컬슨 박사는 "이 신기술은 막히거나 문제가 있는 동맥을 인공동맥으로 대체하는 수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공동맥이 실용화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사이언스)

## 고온에서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 와이어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3M사의 연구진과 테네시주의 오크 리지에 위치한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의 연구진은 송전 라인에 사용할 알루미늄 복합 소재 와이어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 알루미늄 복합 소재 와이어는 알루미늄 기지에 3M 650 세라믹 섬유가 내재된 것이다.

이 복합 소재 와이어는 전류 부하에 의해서 열이 발생될 때 기존의 와이어보다 신장률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크 리지 국립 연구소의 John Stovall 박사는 "3M사의 복합 소재 코어의 새로운 전도체 (composit-core conductor)는 와이어를 생산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송전 라인의 송전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함으로써 매우 높은 온도에서의 변형 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알루미늄 기지는 케이블이 녹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M사는 전도체 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Nexans and Wire Rope Industries사와 공동 작업하고 있다. 현재 오크 리지 국립 연구소는 스트레스/변형 곡선, 파괴점과 같은 장력이나 처짐에 관한 데이터를 관찰함으로써 컴퓨터 모델의 예측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전도체의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된 전도체는 열간 500사이클의 시물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최고 하중 테스트도 실시했다. 또한 정상적인 하중으로 와이어의 수명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es, 2003년 1월 호)

### 바닥재 시장도 건강기능성 제품이 평정

90년대 후반 들어 인체에 유익한 각종 기능을 갖춘 건강기능성 바닥재가 개발되면서 현재 이들 제품이 주거용 바닥재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등 주택 건설업체간의 분양경쟁으로 고급 건축자재의 사용확대 추세와 주고객인 가정주부들의 가족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소비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성 바닥재란 다층으로 이루어진 바닥재의 한 층에 황토, 천연옥, 은, 맥반석, 참숯, 대나무 숯, 천연향, 방충제 등을 첨가하거나, 재질 및 구조설계 개선으로 건강기능성을 부여한 바닥재를 말하며, 원적외선 방출(황토, 맥반석, 천연옥, 숯 첨가), 항균(은 도포), 전자파 차폐(은이나 특수세라믹 첨가), 정전기 방지(숯이나 전도성 물질 첨가), 향기효과(천연향 첨가), 인체충격 최소화 및 소음흡수 기능 등을 나타낸다.

#### ■ 기술개발 동향

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한 형태의 비닐 장판지가 대부분이다. 90년대 중반에 입체효과, 천연원목이나 천연석의 무늬나 질감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심미적인 바닥재가 개발됐다.

90년대 후반부터 심미적인 바닥재에 건강기능성까지 부여한 바닥재가 개발됐다.

기술개요 출원인	제품명	첨가성분	효과
LG화학	깔끄미 황토방, 깔끄미 우드름, LG 조은세상	천연황토, 참숯, 은	원적외선(천연황토, 참숯), 습도조절(참숯), 항균(은), 전자파차폐(은)
금강고려화학	옥장판, 은하수, 참으뜸이, 테마여행	천연옥 분말, 은, 맥반석, 특수세라믹	원적외선(천연옥분말, 맥반석), 항균(은), 전자파차폐(특수세라믹)
한화종합화학	참숯나라파트너, 오죽헌프라임, 황토펀트	참숯, 대나무 숯, 황토, 옥	원적외선(황토, 옥, 참숯, 대나무숯), 습도조절(참숯, 대나무숯)
기 타 법 인	특허출원 중이거나 개발중인 기술		라동장판지, 전도성 장판지, 연속성분 첨가 장판지, 전자파 차단 장판지
개 인	특허출원 중이거나 개발중인 기술		칠보석 첨가 바닥재, 정전기 방지 바닥재, 천연향 발산 바닥재, 흡첨가 바닥재, 천연옥 첨가 바닥재, 게르마늄 첨가 바닥재
비 고	*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향후개발계획 : 인체충격 최소화 바닥재, 피로경감 바닥재, 소음흡수 바닥재, 유해물질 최소화 바닥재		

표1. 주요 출원인별 건강기능성 바닥재 개발동향

#### ■ 특허출원동향

##### • 주거용 바닥재 전체

- 출원년도별: 90년 이후 총 255건이 출원되었으며, 96년부터 출원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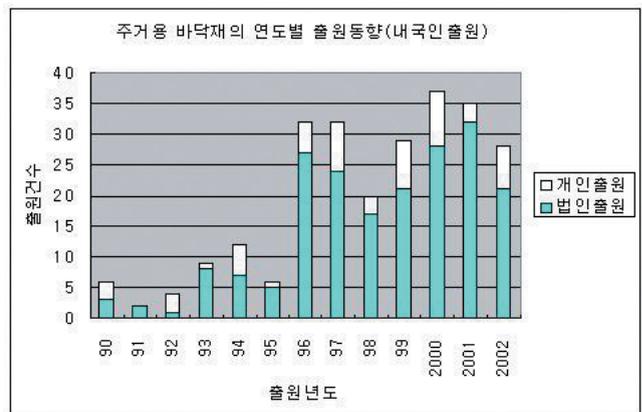
- 출원인별: 법인출원이 주를 이루며, 이중 주요 3사(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출원비중이 85%에 달함.

외국인의 출원건수는 미미함 [표2 참조]

출원년도	내 국 인		외 국 인	전 체
	법 인	개 인		
1990	3 (2)	3	0	6
1991	0 (0)	2	0	2
1992	1 (1)	3	0	4
1993	8 (8)	1	0	9
1994	7 (7)	5	1	13
1995	5 (5)	1	0	6
1996	27 (21)	5	1	33
1997	25 (24)	8	0	33
1998	17 (17)	3	0	20
1999	21 (19)	8		29
2000	28 (21)	9	0	37
2001	32 (27)	3	0	35
2002	21 (14)	7	0	28

표 2

\* ( )는 주요 3사(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출원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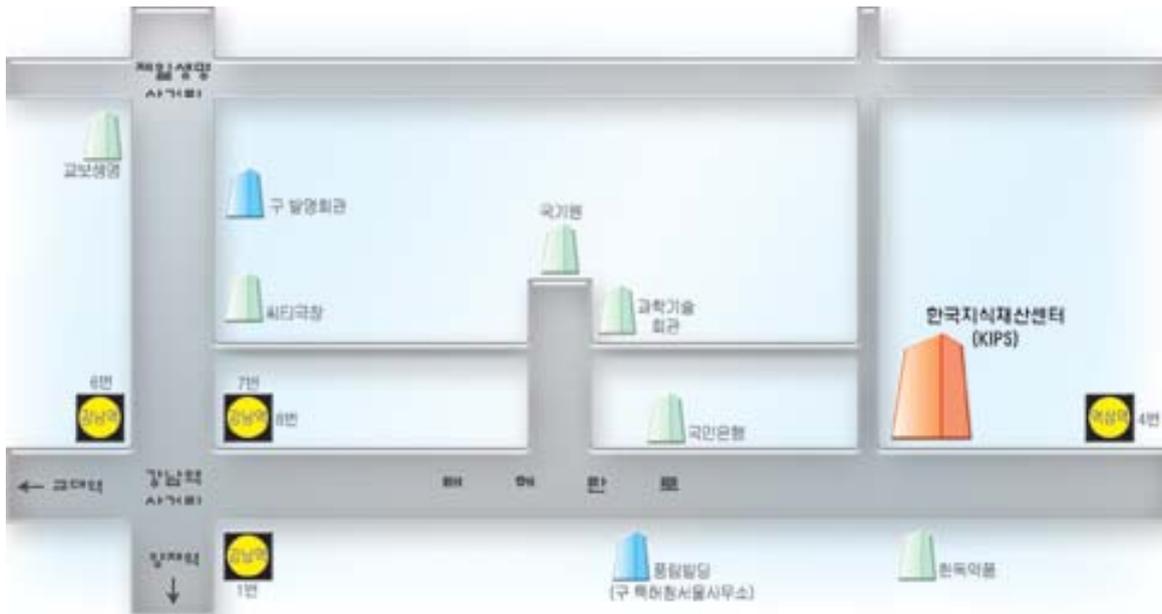




## 한국특허정보원 이전 안내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이 오는 6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로 이전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권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한

국지식재산센터 입주를 계기로 글로벌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35-980)
- 전화 : (02)3452-8144(대)
- FAX : (02)3453-5951
- 찾아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전방 직진

### Patent 21 2003년 6월호

(통권 제48호)

등록번호 : 서울 라09257  
발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민경탁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편집위원 :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  
기획 : 최승중  
광고문의 : 기획팀 (02-3452-8144)  
디자인 : IDO (02-3445-9849)  
인쇄 : 삼원정판사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chosa.or.kr](http://www.chosa.or.kr)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